

朝鮮朝 濟州島 教育에 對한 論攷

金 宗 業

I 序

14世紀末 高麗朝를 易姓革命에 依하여 繼承한 朝鮮朝는 中央集權體制를 整備強化하는 한便 官吏組織과 地方行政體制를 改編하고 高麗의인 教育制度를 踏襲 科擧制度和 함께 改革을 하게 되었다. 朝鮮朝의 官僚中心의 體制가 顯著하여짐에 따라 重儒政策은 加一層 政治·經濟·文化·社會·教育의 全般에 걸쳐 治國의 原理로써 重要視하게 되었고 朝鮮朝의 文化政策의 基本이라 할 수 있는 崇儒排佛과 崇文賤武로 말미암아 自然히 儒學教育에 重點을 두게 되었다. 特히 儒敎的 教育을 通하여 人材를 養成하고 科擧를 通하여 有能한 官吏를 登用하는 이른바 科擧를 爲한 教育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朝鮮朝의 教育을 中心으로 하는 科擧가 詩文 等の 創作과 經書의 暗誦理解를 主로 하였기 때문에 教育自体도 一般化를 이루지 못하고 詩文의 創作이나 經書의 暗誦理解에 置重하였기 때문에 教育自体의 發展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朝鮮朝의 政治의 發展面에 致命傷을 가져 오게 한 것이라 하겠다.

이런 朝鮮朝의 文化政策下에 있어서 邊方인 濟州道의 教育의 狀態는 어떠하였는가? 本道의 教育은 高麗朝의 服屬한 以來 支配層의 子弟들의 10代 靖宗時부터 科擧에 及弟 仕官의 길 이 열려 高維를 비롯하여 高綱, 高紹, 高兆基, 高適 等 顯官에 올랐으며 其影響은 本島의 士官子弟들에게 큰 刺戟을 주었으리라 生覺되며 三別抄軍의 本島에서 抗蒙한지 二年만에 끝을 맺었으나 三別抄軍과 같이 따라 入島한 京畿, 黃海道民들에 依하여 王京의 文化를 直接 接觸함으로써 本島의 文化와 生活樣式에 큰 變化등 가져오게 되었고 또 그네들을 通하여 教育에 對한 影響도 받았으리라 生覺된다.

高麗가 朝鮮朝로 交替됨에 따라 많은 節臣들이 本島에 들어옴으로써 그네들에 依한 本島의 興學이 크게 發展하게 되었으며 그 入島한 代表의 人物로는 陽川許氏의 許遜, 金海金氏의 金萬希, 韓蕨, 金若時 等이 記錄에 나타나고 있다.

本稿는 朝鮮朝에 있어서 本島의 教育과 科擧의 實態를 歷史的으로 其變遷過程을 究明하는데

重點을 두고 오늘의 教育에 參考資料를 提供하는 데 있다.

II 教育制度

1) 鄕校

朝鮮朝 初期에 들어옴으로써 學校의 制度가 드디어 本島에도 設置하게 되어 太祖時 諸道 按廉使에게 命하여 興廢를 守令考課 基準의 하나로 삼는 등 其振興에 注力하여 마침내 各邑에 一校씩 設立하게 되었다, 따라서 本島에서도 이때 鄕校가 設立하게 되어 本格的으로 教育에 臨하게 되었다.

舊在嘉樂川西峯上 萬曆壬午 牧使 金泰廷 移創東南域內 金處禮 舊鄕碑 我太祖元年壬申學校 世宗十七年 乙卯鄕校再造¹⁾ 即 太祖 元년에 學校가 設立을 보게 되고 四代 世宗大王 17년에 鄕校가 再造됨으로 朝鮮朝 建國初부터 邊方인 濟州島에 對한 教育政策을 確認할 수 있으며 鄕校入學資格은 士官子弟 十歲以上者를 入學시켜서

都評議使可……乞自令置教授官 士官子弟十歲以上 皆令人學 養成其材 許赴國試²⁾

人材를 養成하여 中央에 實施하는 科擧試驗에 應試케 하였다.

本來 鄕校는 文廟·明倫堂·齊齋를 設置한 成均館의 縮小된 形能으로써 經國大典의 規定에 依하면 州府에는 從六品인 教授 各一人 郡·縣에는 從九品인 訓導 各一人을 두었으며, 校生의 定員은 府·大都護府·牧은 各 90名, 都護府는 各 70人 郡은 各五十人, 縣은 各 30人으로 되어 그 讀書日課를 守令이 每月 觀察使에 報告하여 優秀한 教育에게는 戶役을 量減하게 하였다고 記錄되어 있다. 本島의 鄕校도 이 規定에 依하여 濟州鄕校外 太宗 16년에 旌義·大靜 兩縣으로 分置하게 되어 鄕校가 設置하게 되었다.

濟州京在所 上言 大靜 旌義 二縣始置 鄕校 兩縣 生徒 各各五十餘人 請選州人 經明行修者 爲教導³⁾

上記 記錄에 依하면 道州島의 鄕校의 校生數는 各五十餘人이고 보면 經國大典의 規定에 依한 各 30人보다 20人이나 超過되어 있으며, 또 教導도 州人의 經明에 能通한 者를 選拔하여 任命한 것으로써 王京으로부터 遠距離에 있는 絕海孤島인 本島의 教育에 朝廷에서는 特別한 措置가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하겠다.

1) 李元鎮 耽羅志 耽羅文獻集 p. 262. 濟州道教育委員會 1976

2) 太宗實錄 卷五, 三年 三月. 丙寅條

3) 世宗實錄 卷十 二年 十一月 乙卯條

本島의 教育職制들 살펴보면 濟州鄉校의 教授職은

我太祖六年 丁丑 革萬戶 置牧使兼 僉節制使 恭靖二年 庚辰 以判官兼 教授 太宗元年 辛巳 復置安撫使兼 牧使...⁴⁾

復差濟州 儒學教授官 禮曹 據濟州牧官呈上書 州及任內 儒生二百余人 詞訟雜務煩劇 雖以判官兼教授官 實難教訓 請依前例 別差教授官 旌義 大靜學校 並令考察以振文風從之⁵⁾

始初에는 判官이 兼하여 오다가 職務上 教育에 專念할 수 없으므로 別途로 教授를 任命하여 教育에 專念케 했으며 鄉校職制로 教授와 訓導, 그리고 學掌이라는 名稱을 가진 三種類가 있었는데 學掌은 品官이 아닌 것으로 보아 代用教師格인 것 같아 郡縣에는 或은 教授가 없는 데도 있고 또 訓導가 없는 데도 있고 500戶未滿되는 小邑에는 學掌만 두었다. ⁶⁾

本島 濟州鄉校에는 教授와 訓導가 各一人씩 配置하였다.

教師任命의 節次는

鄉學勸課之方生員進士中有年德可訓誨之人令各道監司 歲首薦舉啓聞諍曹勿拘才有無隨闕填補其中不樂人 令所在守令 敦勉就任教訓成効令監司啓聞論賞或仍任責勸或隨才取用使之知勸校生年過三十不通一書人外勿充歲貢使知自重⁷⁾

教師任命에 있어서는 生員·進士中에서 年令과 德望에 教師될 만한 資質을 가진 者를 各道 監司로 하여금 年初에 薦舉하고 吏曹에서 詮衡하여 取才의 有無를 不拘하고 闕이 있는데로 補充 採用하기로 하였다. 또 教職을 즐겨하지 않는 者는 그곳 守令이 懇篤히 就任을 勸告하고 成績이 良好한 教師는 監司로 하여금 啓聞시켜 賞을 주고 或은 仍任시켜 勸獎하고 或은 才能에 따라 登用하여 勸獎의 意圖를 알게 하였다.

教育過程을 살펴 보면 本島에 鄉校가 設置된 後, 世宗大王時 本島의 教育을 爲하여 많은 書籍을 下賜하여 濟州의 教育振興에 至大한 影響을 주었다.

賜大學 中庸 論語 孟子 詩書 禮記易春秋 性理大全 各二件 小學十件 于濟州鄉校⁸⁾

4) 李元鑽, 前揭書, p. 210

5) 太宗實錄卷三十五, 十八年 四月 戊戌條

6) 韓基彥, 韓國教育史 p. 122. 博英社 1971.

7) 韓基彥, 前揭書, P. 163.

8) 世宗實錄 卷六十九 十七年條

4 는 문 집

成宗 24年の 柳子光의 上啓에 依하면 濟州僻在滄隅 書籍罕小雖有志於學者未得見之⁹⁾라 記錄되어 있다.

濟州에 直接 王의 允許를 얻어 많은 經書를 보내와 儒生教育和 文運振興에 힘쓰게 하였다.

以上 記錄에 依하여 考察할 때 本島는 처음으로 朝廷으로부터 四書五經의 經典을 下賜받고 鄉校에서 講學한 것을 알 수 있으며 朱子學도 儒生들에게 敎學하여 儒學發展에 至大한 影響을 준 것을 알 수 있다. 一般的으로 鄉校의 教科目은 小學·四書·五經(九經)이 重要한 教科目이고 이 外에 宋學을 大成한 學者들의 修學에 緊要한 글과 귀절을 추려 14部로 分類된 近思錄과 三史等 諸史가 教科目으로 採擇되어 儒生들에게 敎育하였다.

또 中宗 12年에도 絕海孤島인 濟州의 興學에 큰 關心을 가지시와 많은 書籍을 下送하여 敎育振興에 힘쓴 事實도 記錄에 보인다.

濟州牧使 文繼昌啓曰……且本州雖設學校 書冊年久利弊 請資持孝經小學四書而往以敎之¹⁰⁾

以上 記錄과 같이 本島의 敎育은 地理的 關係로 京鄕과 遠距離에 位置하여 書籍購入이 大端히 困難을 느끼기 때문에 朝廷에서 書籍을 直接 下賜하여 本島 敎育振興에 關心을 傾注하여 濟州島의 重要性을 再確認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學風을 振作시키기 爲하여 本島儒生들을 選拔하여 漢城成均館 下齋에 入居케 한 일도 있어 本島 出身子弟에 對한 敎化施策은 當時 朝廷의 特別한 配慮가 있었다고 봐야 하겠고

濟州牧使 宋仁粹 馳啓曰 本州及旌義 大靜等邑 本是 海中防禦之地 此士之人 皆以弓矢爲事 不知學 習 日漸頑悍 校生性品開明 可爲儒業者 擇送于成均館下齋 敎養成材以起類風何如 命下于禮曹,¹¹⁾

本島는 絕海의 孤島이므로 中央과 距離가 멀고 海路가 險惡하여 中央으로 任命된 敎授·訓導 역서 本島에 赴任을 거리는 例가 許多하기 때문에 成宗 21年에는 吏曹判書 鄭文炯의 上啓에 依하여 本島에 赴任하는 敎授 訓導에게는 邊方地域인 北部 博川以西 咸興以北의 例에 따라 加階와 給馬 등을 特別히 授與하여 厚하게 待遇를 하였었다. 이것도 本島의 敎化를 爲한 配慮인 것이다.

9) 成宗實錄 卷二八二, 二十四年九月丙申條

10) 中宗實錄 卷三十一, 十二年十二月戊寅條

11) 中宗實錄 卷六十八, 二十五年 六月 乙卯條

鄭文炯又啓曰 濟州三邑 遠在海外 水路險惡 故教授訓導 人皆厭懼 依博川以西咸興以北例 加階給馬 以送何如上曰可¹²⁾

宣祖年間에는 防禦上 守令이 武官으로 任命되고 있어서 大体로 儒生에 對한 待遇가 좋지 않아 戰時 或은 戰後의 軍役に 從事하는 以外에도 때로는 賤役に 動員되어 從事케 하였는데 訓導 缺員時에는 鄉校儒生들이 訓導가 빨리 赴任하여 放學이 끝나기를 바랐던 것은 儒生들의 賤役을 免코자 하는데 그 큰 理由가 있었던 것이다.

校生等齊來庭訴曰 自亂離以後 權宜放學 久無訓導 非但後生竟蒙莫 知講學之義 聖廟亦漸就荒廢 請 以此意 上達朝廷 復設訓導 余甚嘉喜 即答以此 啓聞退而詢于 本州儒生中有識者 皆曰噫此誠非欲 見訓 導受業講學者也……但 放學之後 兩邑守令 於校生多無狀 或遊客陪人少有不逮 嚴加箠楚 此輩得訓導 可免賤役 故如是懇請云¹³⁾

朝鮮朝의 教育政策은 一般民들의 敎化와 人材養成에 그 主된 目的이 있었지만 鄉校儒生들은 一般民과 달라 軍役과 賤役이 免除되므로 壬辰倭亂 以後 朝鮮朝 後期부터는 免役을 노리는 者들의 入校가 許多하게 나타났으며 또 書院의 發生發達은 鄉校의 敎育的 機能을 痲痺시켜 正常的인 運營이 困難하여졌다. 이러한 現狀은 濟州島뿐만 아니라 全國的인 趨勢였던 것이다.

鄉校의 財源은 國王이 下賜한 學田으로 維持하였다. 最初의 學田의 量이 어느 程度였는지 알 수 없으나 21代 英祖때 州·府 鄉校에는 七結, 郡·縣鄉校에는 五結이었고 이 밖에 地方 住民으로부터 徵收하고 或은 儒林으로부터 寄附金을 얻어 買收한 田地 渡津·漁場·山林 等の 收益으로 經費를 充當하였다.

本島의 儒學以外的 雜科中 醫生을 養成하기 爲하여 朝廷에서 特別히 配慮한 것 같아 即 世宗 11년에는 醫書 十七卷을 下送되어와 別途로 醫學을 志望者에게 教授나 訓導에 依하여 敎育시켰다. 그리고 漢醫方에 精通한 者는 保護하고 그렇지 못한 者는 軍役に 從事케 하였고 每五年에 年少하고 聰明한 醫生 二名씩을 選拔하여 上京케 하고 典醫監과 惠民署에 分屬시켜 그곳 醫員이 가르치되, 課程이 終了하면 本曹와 兩醫司 提調 等の 試講하여 其成績을 作成 怠業한 者에게는 罰을 주고 勤業한 者에게는 歸鄉시켰다. 本島에도 友蓮堂 南쪽에 藥局이 있었고 醫生十四人 藥漢二十名이 있었다,

藥局在友蓮堂南監官二人一人審藥兼醫生十四人 藥漢二十名進上藥採納之後又採營中救急諸藥¹⁴⁾

12) 成宗實錄卷二三八, 二十一年 三月戊午條

13) 金尙憲 南槎錄 耽羅文獻集, p. 135. 濟州道教育委員會 1976

14) 李元鎮 耽羅志 醫藥, p. 279.

2) 學 堂

本島의 教育機關으로 鄉校다음 濟州의 教育에 至大한 貢獻을 한 것은 學堂教育이라 하겠다. 中宗 29年(1534年) 九月에 赴任한 沈連源牧使는 南城內에 鄉學堂을 設立하고 本島民의 子弟를 敎化시키고 明倫堂을 重修하였으며 孝宗 9年(1659年) 4월에 赴任한 李禴牧使는 山馬監牧官을 啓設함과 同時에 金晉鎔의 提議에 따라 城南門內 高得宗의 舊基에 藏修堂을 建立하여 本島 子弟들을 敎育시켰다.

牧使 李禴 建藏修堂 是因金晉鎔 議遂建學堂 于南城內 高得宗舊基 扁藏修 仍興學事...¹⁵⁾

純祖 31年(1831) 牧使 李禮延은 地方子弟를 爲하여 明月里에 右學堂을 建立하고 僻地 子弟 教育에 盡力하였고 同王 33년에는 牧使 韓應浩가 赴任하여 南西兩學堂을 建立하였다. 即 梧登里에 南學堂을, 上加里에 西學堂을 建立하여 地方 子弟를 敎育하다가 憲宗 12年(1846)에 李宜植牧使가 赴任하여 南·西·右學堂을 모두 廢鎖하고 말았다. 이로 因하여 三地域의 地方子弟 教育에 支障을 가져 오게 되고 새로운 西洋文物이 徐徐히 本島에도 들어오기 始作하게 되었다.

3) 書 院

濟州島의 書院의 建立은 顯宗 六年 判官 崔鎮南이 赴任하여 冲庵廟를 藏修堂 南쪽에 移建하고 橘林書院이라 揭額함으로써 發生을 보게 된 것이고 金淨·宋麟壽·金尙憲·鄭蘊 등을 奉祀하고 顯宗 十年에는 別途로 藏修堂 東쪽에 永惠祠를 建立하여 牧使로 赴任했던 李約東·李禴 등을 享祠하였고 橘林書院은 肅宗 八年(1682)에 賜額되어 오랫동안 本島 敎學의 搖籃이 되었다.

顯宗 六年 判官崔鎮南移建冲庵廟于藏修堂南 揭額橘林書院¹⁶⁾

顯宗 十年 建永惠祠 于藏修堂東 享李約東李禴¹⁷⁾

書院의 發生·發達로 因하여 自然히 儒生들은 書院으로 모여 鄉校는 徐徐히 衰退의 길을 걷게 되고 敎學의 殿堂은 鄉校로부터 書院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러나 宣祖때부터 書院의 弊端이 漸次 나타나기 始作하여 書院에 對한 非難은 諸處에 書院이 建立되어 其數가 增加됨에 따라 弊端도 있었다. 書院의 弊端에 對해서 宣祖 11년에 李珥는 近來에 書院 建設이 志學하는 士를 再養하는 데 有益이 많으나 師長이 없으므로 儒生이 서로 모여 放意·自肆하고 矜式이 없고 藏修

15) 金錫翼, 耽羅紀年, p. 395. 耽羅文獻集, 濟州道教育委員會 1976

16) 金錫翼, 前揭書, p. 396.

17) 金錫翼 前揭書, p. 397

의 敎를 볼 수 없으니 國家가 設立한 本意가 아니라고 말하였으며 仁祖 二十三年에 慶尙道 觀察使의 啓에는 士가 된 者는 學問을 일삼지 않고 祀享받는 이는 받을 만한 人物이 아니니 至今부터 新設處에는 다 禮曹에 報告하여 朝廷의 許可를 받게 하라고 하였고 또 孝宗六年에 疊設하는 書院에는 額을 주지 말라고 하였는데 其理由로는 書院이 漸漸 盛하여 鄕校儒生이 다 書院으로 가고 良民으로 軍役을 避하는 者는 다 院僕이라고 핑계하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孝宗八年에는 書院 鄕賢祠의 私建을 헐려고 하였으나 私建이 紛紛히 일어나 禁할 수가 없었다고 하였으며 其後 肅宗八年에 金萬重은 宮室의 美와 守護의 盛이 聖廟보다 나은 곳이 있고 田土를 넓게 차지하고 閑丁을 많이 모으고 배를 지어 놓고 지결이고 먹고 마시기만 일삼으니 一律로 停止시켜 許諾하지 말자고 하였고 또 이밖에도 肅宗 三十八年에 筵臣上啓에는 守令이 조그마한 善治만 있으면 郡民이 生祠를 建立하는 風俗이 생겨 守令이 生祠를 일지 못하면 羞恥로 생각하는 惡習이 생겼다고 하였고 王이 末世의 守令으로 生祠에 합할 이가 몇이나 되겠는가 阿諛의 成風하여 一時에 名譽를 求하여 立祠한 것이니 다 헐어버리라고 하였다¹⁸⁾ 以上은 書院의 弊端을 說明한 一部分이라 하겠거니와 本島에서도 京鄕의 書院의 弊端과 類似하였다고 봐야 하겠다.

4) 書 堂

書堂은 一般 庶民子弟들의 敎育을 爲하여 本島의 文化 및 儒學振興에 이바지한 바 至大할 뿐만 아니라 村落을 單位로 其敎育的 影響은 全島的인 것이라 하겠다. 書堂의 構成도 여러 形態로 區分되며 그 區分의 限界는 書堂의 機成 및 財政的 關係에 依하여 區分할 수 있다.

英祖 12年(1736年) 牧使 金倣은 一般庶民階級の 敎育機關으로써 城東門內에 三泉書堂을 建立하여 地方子弟中 秀才를 敎育하였으며 其後 이 三泉書堂은 純祖 31年(1831年)에 牧使 李禮延에 依하여 東門길가이므로 復雜하다 하여 拱辰亭쪽으로 移設하여 環境 좋은 곳에서 敎育을 시켰다.

英祖十二年 冬牧使金倣建三泉書堂于東城內設齋生稟料以教凡民俊秀¹⁸⁾

純祖三十一年 牧使李禮延建左右學堂 東在細花西在明月設齋生稟料移建拱辰亭于三泉書堂之東嫌其汲路相近 遊人雜踏也¹⁹⁾

旌義縣에도 正祖二年(1778年) 旌義書堂이 設立되었고 大靜縣에도 大靜縣監 高漢祚는 地方子弟敎育을 爲하여 邑內에 書堂을 建立하여 正祖 二十三年(1799)에 縣監 夫宗仁은 書堂을

18) 韓基彥, 前揭書, pp. 141~42

19) 金錫翼, 前揭書, p. 408.

20) 金錫翼, p. 132.

邑城東쪽으로 移設하여 地方 子弟를 敎育하였다.

以上 書堂은 官이나 官職에 있는 사람에 依하여 創建 或은 設立하여 地方 子弟를 敎育시키 有能한 人材를 養成하는데 盡力하여 本島 文化 및 敎育에 큰 影響을 가져 왔다. 이 以外의 敎育機關으로는 各 村落에 散在되어 있는 書堂이 있다. 濟州牧·旌義縣·大靜縣에 設置한 鄉校나 學堂·書院은 受講生의 受容能力이 限定되어 있어 定員 및 通學距離 等 制限이 있는 까닭에 이런 學校에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地方의 特權層의 子弟들이었다. 그러므로 一般 庶民 子弟 敎育을 爲한 敎育施設로서는 書堂이 中心이 되고 있다.

書堂의 種類로는 大概 四形態로 區分할 수 있는데 첫째는 訓長 自身이 自己生計를 爲하여 敎育하는 自營書堂이 있고 둘째는 村落中 生活의 餘裕가 있어 自己 子弟를 敎育시킬 目的으로 訓長을 招聘하여 其訓長이 혼자 담당하면서 가르치는 獨營書堂이고 셋째는 村落有志들이 合資하여 學契 같은 것을 組織하여 訓長을 招聘하여 子弟敎育을 시키는 有志組合書堂이고 넷째로는 村落全體가 合資하여 訓長을 두고 村落子弟들을 敎育하는 村落組合書堂이 있다.²¹⁾

書堂의 組織에는 訓長·接長·學徒로 區分되고 敎育內容은 講讀·製述·習字를 中心으로 講讀에는 千字文·童蒙先習·通鑑·小學·四書五經·史記·唐宋文·唐律 等 오늘날의 國民學校 過程으로써는 相當히 어려운 敎育이었다. 書堂의 學徒의 年令은 7歲~8歲로부터 15歲~16歲의 兒童들의 中心이었으며 경우에 따라 20歲를 超過한 學徒가 있는 書堂도 있었다.

書堂의 敎科目이 보여주듯 이는 四學이나 鄉校의 豫備敎育이라고 할 수 있고 其模範 敎育法은 更辛苦 敎育法과 循繩尺 敎授法을 獎勵한 듯하다. 更辛苦法은 兒童力量에 알맞는 글과 量을 學徒에게 주어 忍耐로써 自力으로 글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循繩尺은 嚴格한 規律를 지키면서 끈기 있게 努力하여 글을 體得케 하는 方法이다.

以上 濟州島 學校의 種類와 其敎育內容을 時代別로 大略 考察하였다.

書堂의 本質은 鄉校나 四學에 入學할 準備敎育이었다. 이런 點에서 當時 書堂은 큰 意義를 가지고 있었으며 一般 大衆의 敎育機關으로서 오랜 歷史를 가지고 있다.

本島의 敎育에 있어서 書堂敎育은 輕視치 못하리만큼 民衆敎化에 功績이 至大하며 三國을 거쳐 統一新羅 및 高麗朝에 이르는 동안 敎育의 質量에 있어서 大衆의 敎化機關으로 꾸준히 維持하여 왔으며 宋나라 徐兢의 著 宣和奉使高麗圖經의 記錄에 依하면 閭閻陋巷에 經館과 書社가 두 셋씩 서로 바라보이며 民間 子弟의 未婚者가 무리로 모여 스승에게 經을 배우며 조금 成長하면 類대로 벗을 擇하여 寺觀으로 가서 講習하고 아래로 卒伍 童稚도 역시 鄉先生에게 배운다는 것은 곧 當時의 書堂이 얼마나 많았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며 書堂工夫는 朝鮮朝에 들어와서 重儒의 文敎政策의 影響으로 加一層 發展하게 되었다.

21) 韓基彥, 前揭書, pp. 146~147.

Ⅱ. 試取關係

1) 武 科

朝鮮朝는 建國初부터 教育制度의 完備와 隨件하여 科擧法을 制定하면서 全國的으로 學德 높은 人材를 選拔하여 官僚의 質的 向上을 圖謀하였으며 中央 및 地方의 差없이 人材登用に 留意하였다.

本島도 太祖 三年에 都評議使司의 濟州學校에 關한 上言에서 乞自今 置教授官 士官子弟10歲以上 皆令入學養成其材許赴國試란 記錄에서 보다시피 國初부터 國試에 應試할 수 있도록 朝廷에서 配慮한 것으로써 本島人에게 官吏進出의 길을 터준 셈이다. 그러나 鄉校가 創建된 以後 本島人들의 試取過程에 있어서 初試는 觀察使 主宰로 열리기 때문에 立地的 條件으로 因하여 試才에 나가는 路는 難望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本島人의 初試는 當地에서 生員科, 進士科 初試를 設置한 바 있으나 施行上 難點이 있어 中止되고 말았다.

仁祖十六年 牧使 沈演 啓設陞補初試歲 取二人 試課以詩賦計劃惟文官 在任時 爲然按 世宗戊午 設生進初試 甲子停後辛未復設又仍停至是沈演 又啓設儒生陞補²²⁾

本島는 鄉校設置後 約 200年이 經過한 11代 中宗當時부터 本島人에 對한 試取가 正常的으로 施行을 보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中宗五年 濟州子弟 副司猛 金義中이 上疏에서

濟州子弟副司猛金義中等上疏其略曰……且濟州三邑 地非不廣 人非不多而文武之士罕出者 豈無其故 是誠平民無科試勸獎之方……臣等竊以爲三年大比別設科條 文武生員酌定甚類都會鄉試 如內地之例²³⁾

中宗五年에 濟州人副司猛 金義中 等이 濟州에도 本土內地와 같이 例에 따라三年마다 定期的으로 平民이 文武鄉試設置를 請願하였다. 이 金義中 等の 上疏 內容을 보건데 世宗 文宗時에 暫時 生進 初試가 設置되었다가 中斷된 以來 中宗朝까지 本島의 경우 交通關係로 特別히 現地에서 鄉試를 施行하는 規定이 없었으므로 本島에서도 鄉試를 施行할 수 있도록 科條를 別設해 줄 것을 建議한 것이라 하겠다.

中宗八年에는 前에 濟州牧使를 지낸 바 있는 漢城左尹 金錫哲이 書啓로서 濟州武科 試取를 請하여 가로되 全羅道 武科 鄉試 額數二十五人內에서 三人을 除出하여 每式年에 三邑守令으로 하

22) 金錫翼, 前揭書, p. 393

23) 中宗實錄卷十一, 五年七月, 甲子條.

여금 試官을 삼아 試取 上送하여 會試에 應하게 하면 三邑人이 感發하여 弓馬를 爭習하게 되어 禦敵長技가 이로 말미암아 成就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으므로 王은 이에 따라 처음으로 武科 試取를 許하였고 其 試取 方法은 濟州牧使로 하여금 內禁衛의 取才失數에 依하여 試取한 후 合格者 三人을 上送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이것이 本島에서 武科 鄉試 試取의 始初이다. 그러나 이때가 三浦倭亂이 있었던 三年後이기 때문에 文士보다 武士를 選拔하여 外勢를 막고자 하는 데에 目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全羅道武科鄉試額數二十五人內 除出三人每式年 以三邑守令爲之試官 試取上送 令赴會試 則三邑之人 感發而爭習弓馬禦敵長技 自此而成就一上從之²⁴⁾

本島武科鄉試의 額數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中宗朝에는 三人으로 하였으나 國難時 國防上 必要에 따라 其數가 增加할 때도 있었다. 宣祖二十七年(1594)에는 濟州三邑의 試取數를 五十人으로 定하였다. 이때는 壬辰倭亂의 禍中이어서 現地防禦가 時急한 形便이었기 때문에 武科의 試取數를 크게 增加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본다.

兵曹啓曰 濟州三邑 試取之數 問于大臣 則沈守慶 崔興源議以 爲五十人爲當 柳成龍議舟師前取百人 今 此三邑人材多 則百人爲當 小則五十人亦可云矣 傳曰取五十人²⁵⁾

2) 文 科

本島의 文科初試가 設置된 時期는 자세치 않으나 御史를 考견하는 일이 있을 때는 文科初試가 施行되었던 것으로 본다. 宣祖 34년에는 金尙憲이 御史로 派遣되었는데 傳曰 御史今日不須 發行 退行可也 禮曹啓曰 濟州儒生考講製述 令御史等第啓聞矣 考講則經史中自願 製述則令大提學 出題以送如何²⁶⁾라는 記錄으로 미루어 보아 本州 儒生들에게 처음으로 製述로 試才하였는데

早出觀德亭 試校生製述入庭十二人成篇七人入格四人曳五人 翌日欲試論表 無成誠人云²⁷⁾

四人이 入格하였다. 그러나 本島의 文科 試取는 仁祖때부터 始作하여 其方法은 御史를 보내어 鄉試場을 設置하여 試取케 하고 合格者에 對하여서는 王이 特命으로 殿試를 보게 하였다. 이는 仁祖 15년에 牧使 沈演이 朝廷에 建議하여 每年 二人에게 詩賦計劃을 考하도록 하였던 바 朝廷에서 오직 文官인 牧使로 在任時에만 그렇게 하기로 允許를 하였기로 이로부터 文官이 牧使로

24) 中宗實錄 卷十九, 八年十二月, 庚申條

25) 宣祖實錄卷 五十二, 二十七年六月, 己酉條

26) 金尙憲, 前揭書, p. 24

27) 金尙憲, 前揭書, p. 114

在任時 文科試取가 이루어진 것이다.

牧使沈演 啓設陞補初試歲試取二人 試課以詩賦計測惟文官在任時爲然²⁸⁾

孝宗二年에 御史 李慶億의 建議에 依하여 儒生들이 會試에 나가게 되고 그때 濟州의 子弟에 及弟의 規定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그後 中斷되었다가 顯宗五年에 다시 先朝의 故事에 依하여 御史를 特派하여 試才를 繼續하였다.

濟州試才 御史 尹深復命 進儒生製述及武士試才單子 上命大提學科次 儒生試卷 選取 文榮後 文徽後 高弘進 等 三人 並賜直赴殿試²⁹⁾

이때 試取는 儒生製述과 武士試才의 單子를 올린 後 大提學으로 하여금 儒生試卷의 等級을 定하여 三人을 選取하였으며 殿試에 應試케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文科인 경우도 武科와 같이 覆試를 거치지 않고 殿試에 應試할 수 있는 特典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肅宗朝에 이르러 全羅道 文科初試 一額을 濟州에 配定하고 文臣이 牧使이면 教授와 더불어 試取하고 武臣이 牧使인 경우 文官을 判官으로 삼고 教授와 같이 試取하게 하였던 것이므로 文科式年 初試는 試才御史의 派遣이 없는 때는 大体로 牧使나 判官을 試官으로 하여 試取하였던 것이다.

左議政 李世白曰……今許以全羅道文科 初試一額 移于濟州 文臣爲牧使 則與教授試取 武臣爲牧使 則判官當爲文臣 與教授又可以試取 宜以此爲式從之³⁰⁾

上記 記錄으로 보면 文科 式年試는 本島鄉試의 試取入員을 一名으로 定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他科의 경우는 試取定數가 增加되는 경우도 있다.

英祖元年의 增廣試에는 初試 入格者가 三名이나 되어 式年試와는 달리 試取入員을 增加하였고 絕海孤島인 濟州에서 初試入格者가 會試를 치르지 못하자 庭試殿試에 應試할 수 있도록 特典을 주었다.

命濟州增廣初試入格人 李盤根等三人 許赴於今庭試殿試 蓋本州以絕海之地 自前初試入格之類 雖未及

28) 金錫翼, 前揭書, p. 393

29) 顯宗實錄, 卷九, 五年十一月, 丁酉條

30) 肅宗實錄卷三十五, 二十七年 六月, 丙寅條

於本科 會試隨其來訴 許赴他科 故有是命³¹⁾

그러나 이러한 制度는 定期的으로 施行한 것이 아니고 當時 形便에 依하여 實施하였던 것으로 本島에 饑饉이나 疫病이나 災難이 있어 島民들이 困難을 當하였을 때 或은 謀逆事件 民亂 등이 생겨 島民이 불평과 疑懼心이 있을 때 特別히 朝廷에서 慰諭御史를 濟州에 派遣, 賑恤狀況과 島民의 弊癘을 살피고 文武試才를 行하여 島民을 懷柔하였다.

Ⅳ 本島 教學에 힘쓴 牧民官

1) 李 約東牧使의 號는 老村으로 成宗 一年에 濟州牧로 赴任하여 成宗 三年에 僉樞職으로 榮轉하여 떠났다. 그는 在任時 本島 儒生들의 向學熱이 높은 것을 嘉尙하게 생각하여 教授가 없어서 學問을 研磨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겨 公務의 余暇를 틈타 儒生들에게 直接 經書를 教授하였고 任期가 終了되자 上京하여 大司諫 知中樞府事職에 있으면서도 濟州三邑의 儒生教育問題 等에 恒常 留念하여 濟州牧使는 文武兼備한 人材를 選定任命하여 濟州의 民治와 教學에 힘써 人材養成에 努力하도록 上啓하였고 經書도 稀少하므로 四書三經을 보내도록 하여 本島教育과 文化發展面에 貢獻이 至大하다. 이에 濟州島民은 그의 功德을 追慕하기 爲하여 孝宗十年에 藏修堂 東쪽에 永惠祠를 建立하여 享祀하였다.³²⁾

2) 林 亨秀는 文武를 兼備한 선비로써 仁宗一年에 權奸의 비위를 견드리 副提學에서 濟州牧使로 左遷되어 赴任한 분이다.

濟州牧使로 赴任한 그는 政事에 嚴正을 期하고 地方子弟教育에도 盡力하여 明月에 月溪精舍 金寧에 金寧精舍 等을 設立하여 一般 庶民 子弟教育에 貢獻한 바가 크다.³³⁾

3) 金 尙憲은 號는 淸陰, 宣祖 34年 10월에 蘇德裕 反亂未遂事件으로 島內民心이 凶凶하므로 接撫御史로 濟州에 와서 各處를 巡廻하고 翌年 正月에 떠났는데 其間 民情視察은 勿論, 島民의 疑懼心을 덜게 하고 各鄉校에서 考課도 하였다. 그가 著述한 南槎錄에 依하면 旌義鄉校에 校生이 10余名이 있었는데 모두 言語를 理解하지 못하여 같이 말할 수 있는 者가 매우 적었다고 記錄되어 있음은 校生들의 地方俗語 使用때문이라고 본다. 또 本島 官員들이 島民에게 끼치는 民弊를 把握하여 이를 防止했었다. 顯宗 十年에는 金 尙憲의 教化에 對한 業績을 追慕하기 爲하여 橘林書院에 追享하였다.³⁴⁾

31) 英祖實錄, 卷八, 元年十月, 庚寅條

32) 濟州教育通史, p45. 濟州道教育研究院 1974

33) 濟州教育通史 p. 57

34) 前揭書 p. 58

4) 李 元鎮牧使는 孝宗 二年부터 同 4년까지 節制使兼牧使로 在任하면서 本島教育振興에 힘을 傾注하였으며 特히 高弘進을 시켜 本島의 歷史를 記錄한 耽羅志는 本島 歷史研究에 貴重한 文獻으로서 其價値가 크며 그는 文教에 뜻을 두어 當時 大靜鄉校가 廢退된 것을 보고 立地的條件이 不利하다 하여 그 當時 巡廻中이던 御史 李 慶億에 進言하여 大靜鄉校를 至今의 箆山南쪽 기슭으로 移建하였으며 本島鄉校의 興學發展에 貢獻이 至大하였다.³⁵⁾

5) 李 衡祥牧使는 文武를 兼備한 強直하고 清廉한 牧民官으로서 肅宗 二十八年에 濟州牧使로 赴任 翌年 六月에 薨했으나 그의 在任 一年三個月間의 짧은 期間이지만 그의 業績은 本島의 生活風俗矯正面에 至大한 影響을 주었으며 所謂 堂五百 寺刹五百을 禱 ‘永川 李牧使’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赴任하면서 學問을 勸獎하기 爲하여 三邑의 墳墓를 修築하는 한便, 學者를 選拔하여 教育에 힘쓰도록 하였고 崇祖思想을 鼓吹하기 爲하여 三姓祠를 建立하여 春秋로 祭祀하도록 하고 三姓穴地帶를 聖域化하였으며 當時 島民들이 迷信에 과문혀 淫祠에 얽매어 精神的 物質的 弊端이 甚한 것을 보고 斷乎히 其弊習을 根絶시키기 爲하여 島內에 散在되어 있는 淫祠 一二九個所를 燒却시키고 이에 屬해 있는 巫堂들의 名單과 巫堂用具를 沒收하여 燒却시키고 健全한 生業을 갖도록 說得하였다. 이때 官行으로 舉行하던 漢拏山祭도 禁하였고 島內에 散在되고 있는 水精寺·普門寺·月溪寺·妙蓮寺·江臨寺·小林寺·安心寺·靈泉寺·法華寺等 많은 寺刹들을 一切히 翫어버렸다. 이처럼 李 衡祥牧使는 本島의 教育振興은 勿論 社會教化面에 있어서 貢獻이 至大하였다.³⁶⁾

V 流謫人士의 本島教學에 對한 業績

朝鮮朝 燕山君以來 四大士禍와 黨爭으로 政變이 있을 때마다 中央에 이름난 政客과 知識人들이 이 고장에 流配되어 本島住民들에게 直接 間接으로 學問과 禮節等 教學과 文化發展에 至大한 影響을 끼친 人士들이 많았다. 特히 本島 教育에 對하여 貢獻이 많은 代表的 人士를 列舉하여 그 實績을 살피기로 하겠다.

1) 金 淨

金淨은 中宗14年 己卯士禍에 關聯되어 錦山에 流配되었다가 同十五年 八月에 濟州에 移配 同十六年 十月 十七日에 賜死하였다. 金淨은 號는 冲庵 淳昌郡守로 在職 當時 潭陽府使 朴 禔과 廢妃 愼氏 復位를 上疏하였다가 得罪下獄되었으나 領議政 鄭光弼의 力救로 死를 免하여 報恩縣으로 流配되었다가 翌年 赦免 朝廷入仕 副提學 大司憲을 거쳐 刑曹判書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35) 前掲書 p. 57

36) 前掲書 p. 59

中宗十四年十一月十五日 에奸臣 沈貞·南袞 等の 誣告한 謀陷으로 일으킨 己卯士禍로 趙光祖 一派로 몰려 處刑되려는 것을 鄭光弼의 擁護로 珍島에 流配되었다가 濟州로 移配, 安置하였다. 金淨은 濟州城 東門밖 금광사 옛터 盧幕에서 謫居하였는데 本島民을 爲하여 興學教化에 힘썼다. 그는 濟州風土錄을 著述하였고 모든 禮節을 啓導하며 佛敎信仰을 勸獎하였으며 五賢의 한 사람이다.³⁷⁾

2) 鄭 蘊

鄭 蘊은 光海君 二年에 科擧에 及弟, 司諫院 正諫으로 있을 때 永昌大君이 죽음을 當하자 光海君 六年 上疏하여 “逆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린 永昌大君을 죽인 鄭 沆을 죽이지 않으면 殿下는 先王의 朝廷에 설 面目이 없을 것이니 그 者를 죽여야 하며 또 永昌大君의 爵位를 追賜하고 禮葬을 許하여 이 事實을 世上에 公布하여 殿下의 友愛의 本心을 밝히소서”하였고 또 “永昌大君의 生母인 仁穆大妃 廢母議를 先唱한 鄭 造·尹 詔·丁 好寬 等 三人을 致罪하여 三綱五常의 道를 바로잡아야 합니다다 하였다. 이 極言 極諫의 疏狀은 光海君을 怒하게 하여 鄭 蘊을 下獄시키고 同時에 三司에서는 絕島에 安置시키기를 請하였던 바 光海君은 疏狀의 內容이 無道莫甚한 것인데 安置만으로 科罪함은 君主를 無視하고 自己들의 派黨만을 擁護하는 것이라 하여 大逆으로 致罪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右議政 鄭 昌衍은 極力 이를 反對하고 原任大臣 李 元翼과 沈 喜壽 等도 不可를 主張하였으나 奸臣 鄭 仁弘은 容恕不可를 主張하였기 때문에 光海君은 鄭 仁弘의 主張에 따라 親鞠하려 함 에 領議政 奇 自獻은 “鄭 蘊은 오직 狂妄에 불가할 뿐 他罪는 없으니 鞠問함은 不可합니다” 함으로 王도 하는 수 없이 同年 八月에 濟州大靜으로 流配시켰으니 當時 나이 46才이었다.

鄭 蘊은 濟州에서 約 八年間 大靜縣 謫所에서 生活하였는데 그는 流配時 數百卷의 經書 等 書籍을 갖고 왔으므로 讀書로써 日課를 삼았으며 島民을 爲하여 教化에 盡力하였다. 流謫 八年間 그가 이룩한 學問과 德行을 추모하여 顯宗9년에 橘林書院에 享祀하였고 憲宗 8년에는 李 源 祚牧使에 依하여 桐溪謫盧碑를 建立했는데 至今도 보성국민학교 校庭에 남아 있으며 五賢의 한 사람이다.³⁸⁾

3) 宋 時烈

宋 時烈은 朝鮮朝 中期의 大學者요 大政治家이며 老論의 領首이다. 그가 濟州에 流配된 것은 肅宗 14年 (1688)에 張 禧嬪의 所生인 王子를 元子로 하여 世子册封하게 되자, 宋 時烈은 15年에 上疏하여 어린 王庶子로써 元子로 正호함은 時期尙우이며 世子册封은 不可하다고 諫하였다가 肅宗은 크게 怒하여 무례한 말로써 世子册封에 干涉하는 者라 하여 同年 2월에 83才의 高壽

37) 前揭書 p. 64

38) 前揭書 p. 67

임에도 불구하고 濟州로 流配시켰다. 그는 子息과 孫子 그리고 同生 2人을 데리고 忠南 瑞山郡 泰仁에서 船便으로 濟州에 到着하였는데 同年 5월에 이르러 南인들이 또 다시 그를 잡아다가 鞠問하기를 여러번 請하였으므로 王은 이를 允許하여 6月 7일에 井邑에 到着하였을 때 賜藥이 내려와 6月 8日 賜藥을 먹어 絶命하였다.

그의 濟州謫居는 百餘日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의 孫子 瞻錫과 더불어 朱子大全·語類·易學·啓蒙綱目 등을 讀書하면서 思索에 잠겼다 하며 때로는 橋林書院에 祭文을 지어 告하게 한 일도 있었다고 하며 謫居中 論孟問義通攷를 著述하였다 한다. 그는 朱子學의 大家이며 謫居의 어려운 가운데 著述에 힘쓰고 學問에 熱中하여 學子들을 教化시켰다. 著名한 著書로는 朱子大全 割疑·二程書分類·語類小分·論孟問義通攷·心經釋義 등이 있다. 그가 濟州에서 謫居生活의 不遇三個月밖에 되지 않으나 當代의 巨儒요 大碩學을 本道 儒生들이 師事할 機會를 가지게 된 것은 多幸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고 또 많은 貴重한 書籍들을 閱覽하게 된 것은 本島教育에 큰 發展의 機會를 주었다고 본다. 朝廷에서는 그가 죽은 五年後 官爵을 復舊하고 文正의 시호를 내리고 道峰書院과 文正書院에 그를 享祠하였는데 濟州에 六年後 肅宗 21년에 橋林書院에 追享하여 그의 遺德을 追慕하였고 五賢의 한 사람이다.³⁹⁾

4) 金 春澤

金 春澤은 號는 北軒, 肅宗 15년에 流配되어 約 5年餘 濟州에 謫居生活을 한 金 鎮龜의 아들이다. 그는 詩文에 뛰어나 從祖 金 萬重의 著 謝氏 南征記를 漢譯하였으며 南인들의 謀陷에 禍를 입어 30餘年 獄살이와 流配生活을 한 사람이다. 肅宗 32年 (1706)9월에 濟州에 流配當하여 12年間 謫居生活을 하면서 本島民의 教育에 專念하였고 때마침 巡撫御使 李 海朝가 御題를 가지고 와서 濟州儒生들을 試取하였는데 그의 生親에게 修學한 吳 廷賓과 高 萬瞻이 文科에 及弟하였으므로 그는 及弟한 그들과 先親의 遺德을 追慕하였고 二代에 걸쳐 濟州에 謫居生活 속에서 濟州의 教育振興에 貢獻한 바 至大한 것이다.⁴⁰⁾

5) 金 正喜

朝鮮朝末期에 있어서 考證學者 金石學者 書道家이다. 號는 阮堂·秋史 禮堂·詩庵·果坡·老果 등이 있다. 벼슬은 大司成 兵曹參判에 이르렀고 20歲에 父親 金 老敬을 따라 純祖 9년에 冬至 副使로 北京에 가게 될 때 隨行하여 그곳 大學者인 翁方綱과 阮元 두 大家를 만나 그들의 指導를 받았다. 翁方綱은 當代 大經學者이었는데 金正喜를 보고 海東의 英才라 하여 當時 學問의 傾向과 經學을 說明하였고 金石書畫도 指導하였다 한다. 阮元은 實事求是의 大經學者로써 金正喜의 非凡함을 認定하여 特別히 指導하였으므로 經學과 金石學에 對하여 權威를 세웠고 書道

39) 前掲書 p.73

40) 前掲書 p.75

에 있어서도 中國의 名筆을 따라 筆法을 研究한 結果 草·楷·篆·隸의 妙를 體得하여 末年에는 中國 書風을 벗어나 自由 無涯한 秋史體를 開拓하여 朝鮮朝의 名筆家가 되었다.

그가 濟州에 流配된 動機는 憲宗 6年 尹 尙道の 獄에 關聯되어 同年 9月 4日 流配되어 同王 14년까지 9年間 大靜縣에서 謫居하면서 本島 教育에 貢獻하였다. 그는 同年 9月 27日에 濟州에 到着하여 10月 1日에 大靜邑 宋 啓純의 집에 謫居하다가 後日에 姜 道淳의 집으로 移謫하여 生活하다가 倉川村으로 옮겼다. 그가 大靜邑에 謫居生活하게 되자 遠近 學徒 儒生들이 通鑑·論語·孟子 등을 工夫하는 것이 高작이었는데 金 正喜는 四書五經은 勿論 書道와 天文 및 算數學까지도 指導를 하게 되었으므로 當時 本島 儒生들은 始初로 科學的인 實事求是의 學問을 接하게 되었으며 本島 近代學問에 至大한 影響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弟子로서 郭支사람 朴 癸瞻 濟州사람 金 九五, 大靜사람 姜 道渾 등은 有名하다.⁴¹⁾

本島 教育에 있어서 以上 牧民官과 流謫人士들의 教育振興에 對하여 略述하였으나 本島는 絕海孤島로 中央과의 交通의 不便은 勿論 朝廷에서 派遣되는 教授官이나 訓導가 忌避하는 傾向이 있어 淸貧하고 有德한 牧民官들의 善政과 教化는 本島의 行政 秩序確立은 勿論, 教學振興에 至大한 影響을 주었으며 또 中央으로부터 顯官들이 流配되어 온 謫居生活은 本島民의 儒生에 對한 教育上의 惠澤은 勿論, 社會·風俗·禮節等 京鄉各地의 生活樣式이 本島民들에게 傳해져서 本島의 前近代의 社會가 漸次的으로 變遷 近代化의 展開가 이루어 졌다고 본다.

VI 結 言

朝鮮朝에 있어서 濟州島의 教育은 大体로 鄉校·學堂·書院 書堂을 中心으로 中央에서 派遣하는 教授官 訓導에 依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다. 때로는 鄉校의 教授官乃至訓導가 없어서 儒生들의 教育에 支障이 있을 때는 學德이 높은 儒生中에서 推舉하여 臨할 때도 있었고 또 學德이 높고 經學에 能通한 牧民官이 直接 教授하는 경우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本島의 教育은 一般的으로 人材養成의 目的보다도 邊方地方子弟의 教化가 主된 目的이라 할 수 있고 特히 試取過程에서 及弟하는 文科 武科의 試取 및 弟數에 武科가 많은 것은 濟州島가 邊方으로써 國防上의 要衝이고 倭와의 距離關係도 있어서 國土防衛와 外敵侵入에 對備한 朝鮮朝 國防政策의 一環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다. 一般庶民의 教育에 있어서는 書堂이 中心이 되어 村落마다 書堂이 散在되어 村民의 子弟教育을 擔當하였으며 書院의 發生發達은 本島 三邑의 鄉校教育을 衰退케한 原因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리고 有能한 牧民官의 渡來와 中央朝廷의 顯官大爵들의 流配는 本島 教育振興과 文化·社會·風俗等에 至大한 影響을 끼쳤으며 本島 固有의 遺風은 漸次 사라지고 韓民族의 文化圈에 渾然一體가 되어 갔다고 보아야 하겠다.

41) 前掲書 p. 82

—Summary—

Historical Survey of Formal Education in Jeju Island —Mainly during the Yi Dynasty—

Kim Chong-eup

The education in Jeju Island under the Kingdom of Yi dynasty can be said to have been, on the whole, conducted by professors (officials who taught the students of Confucian) or elementary school teachers dispatch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t a Confucian temple (鄉校), a village school (學堂), a lecture-hall (書院), and a private school for the study of Chinese classics(書堂). Occasionally when there were difficulties in educating the students of Confucianism due to the lack of professors or elementary school teachers, sometimes the recommended student of Confucianism with highly learning and virtue took charge of their education, and sometimes the governor who had not only highly learning and virtue, but also were good at the study of Chinese classics. However, the education here in Jeju Island at the time can be said to have been mainly to enlighten the sons in side areas, not to cultivate men of talent. Besides in the process of selecting the men of talent through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under the kingdom and the military service, the latter was far more. This was done as a part of the defensive policy for the country against the Japanese, for Jeju Island was a place of strategic importance in those days. The private schools for the study of Chinese classics were seats in educating the common people, and in the scattered village schoolhouses was conducted the education of villagers' sons. And at the same time the appearance and development of the lecture-halls made declined the education in a Confucian temple in three towns of this Island. Moreover, the coming of an able governor and the exiles to this Island by the court of highly public officials and men of high rank had a great effect not only the advancement of education, but also on culture, social traditions, and speech. And therefore, it can be said to that the traditions which were to be found only in Jeju Island made their gradual disappearance and were united together in a nation's cultural sphere.